

어머니주일  
설 교

## 주님을 섬기는 우리 집

<여호수아 24:14~18>

박 애 선 목사 (이마후쿠 <今福> 교회)



오늘은 어머니 날 주일입니다. 먼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위에, 어머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머니날 만큼은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멀리 어머니가 살고 계시다면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24장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광야의 마지막 여정을 인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세겜 계약' 이라고 불립니다. 세겜 계약의 내용은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킬 것임을 재확인하고, 12 부족이 일치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로 결속하기 위한 서약입니다. 특히 본문의 14절에서 18절까지의 약속은 여호수아의 중용과 백성들의 결단이 펼쳐지면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인 '나와 우리 가족은 주님을 섬기리' 라는 기도를 할때,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의가 유지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필요한 바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예배할 것인지, 광야에서 인도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양쪽 신들을 예배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1) 섬길분을 바르게 알고 그외 나머지는 버리는 자세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릴 대상은 우리를 만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버리다'란 다른 신들을 없애버리다, 폐지하다, 끝나다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위를 멈추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우상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강하고 대담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쪽 신에게도 저쪽 신에게도 좋은 얼굴을 하고 절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집에도 이 약속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말머느리로 시집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교회에 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며 괴로워하며 제사

를 지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버리고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결과 시아버지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지금은 세 목사, 장로, 집사의 어머니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의 할머니로서 매일 아침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눈은 나쁘지만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94세의 시어머니에게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 (2) 성실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워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이스라엘 조상들이 강 건너편이나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떠나 주를 섬기라. 성실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라고 권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면, 의로운 것을 향해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마음으로 얼굴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돌릴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 (3) 행실로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항상 행실이 따릅니다. 신앙과 행위는 함께 일치해야 합니다(벧전 1:17 참조). '섬기다'는 노동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숭배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노동의 땀이 흐르고 봉사와 예배가 뒤따라야 합니다. 버리기는 어렵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것도 쉽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며 섬겨야 합니다. 신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인 후 땀을 흘리고 힘차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교우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섬기는 분을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을 성실하게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 진실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물음에 합당한 응답의 삶이 없다면, 회개하고 우리도 주님과 관계가 방해하는 어떤 것도 버리고 떠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것을 맡깁시다. 주님의 강한 손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나와 내집은 주님을 섬기겠노라'라고 결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관동지방회

# 신앙강연회를 개최

##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기의 기독교 미술」테마로

2023년 4월 16일, 주일 오후에 관동지방회에서는 전도부 주최로 강연회가 오랜만에 동경교회에서 가졌다. 테마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기의 기독교 미술>로, 강사로는 기독교대안관리회 독일 선교사로서 재독 29년의 경험으로 기독교미술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재훈목사를 초청하여 유럽의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시대의 미술품과 교회당 건축물에 대하여, 그 당시 캐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신앙의 모습 등에 대하여 많은 배움이 있었다.



신관서신원서

# 2022년도 졸업식 거행

## 11월에 창립60주년 기념대회 예정

2022년도 관서서신학원 졸업식이 3월 19일, 오후 3시에 본 교사(大阪北部教会)에서 거행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도 작년 이어 주로 재학생과 졸업생 및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졸업예배는 본 신학원 교무 조영철목사(大阪北部教会)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영자목사(관서지방회장 대행)가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 후에 학원장 김무사목사로부터 졸업증서를 수여된 후, 본 신학원 이사장 전성삼목사(후세교회)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쳤다.

금년도 졸업한 신학생은 본과 졸업생 송승미(宋承美, 大阪教会), 강명미(姜明美, 大阪北部教会) 2명이었다. 그들은 본과를 졸업하고 연구과에 진학하여 각 교회와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포부를 말하였다.



関西聖書神学院은 1984년에 在日大韓基督教会에서 심길人材養成, 教会奉仕를 위한 信徒教育과 訓練, 그리고 神学形成을 위해 関西地方会를 中心으로 設立된 以来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고: 양영철목사)

第56回總會期

# 제3회 상임위원회 열어

제56회 총회기 제3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2023년 4월 11일, KCC(大阪)에서 개최되어 상임위원 24명 중에 17명, 특별위원장 3명이 참석하여 각종 보고 및 현의안 등을 심의하였다.

심의되어진 주요한 현의안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해기금>의 필요성 있어, 전국교회에서 보내오는 크리스마스 헌금에서 매년 20만엔을 적립하기로.
- (2) 제57회 정기총회 표어를 <매마른 땅에 은혜가 샘솟는 교회>로.
- (3) 신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연간 예산을 10만엔에서 30만으로 증액하는 것을 재정위원회에 맡겨 제57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 (4) 신한일찬송가 제3판 인쇄를 기하여, 한국에서의 판매 가능성을 <한국장로교출판사>와의 교섭을 검토, 추진하기로.
- (5) 구제기금위원회의 규칙개정을 제57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 (6) 차기 상임위원회는 2023년 9월 15일(금) 11:00, 동경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청년회전례

# 베트남 청년들과 찬양교류

## 아시아계 주민 선교를 향하여 첫 걸음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은 관서지방회 개교회 방문의 일환으로 3월 19일에 히라노(平野)교회(김종권목사) 저녁예배에 출석하여, 베트남인 청년회와 함께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당일 平野교회 신도와 전협 임원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교류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베트남 청년들이 연주하고 부르는 찬양의 아름다움이 인상 깊었다. 이주민 1세로서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 있지만 믿음이 청년들의 삶의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기회가 되었다.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던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 성실하게 관계를 쌓아가는 자세를 볼 수 있었다.

平野교회는 베트남 청년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다. 전도의 성과로 大阪뿐만 아니라 神戸와 滋賀 등 비교적 멀리 살고 있는 베트남 청년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교회와 청년들은 장래에 베트남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지도자 양성의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고, 다민족 공생·다양성 존중을 지향하는 21세기의 안디옥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꿈꾸는 전협과 전협을 돕는 신도위원회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뜻 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전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고, 11월에 개최되는 전협 창립 60주년 기념대회에서 베트남 청년들의 찬양의 기회를 제안하려고 한다. 이번 교류회는 청년들이 아시아계 주민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었다.

(보고: 양양일 신도위원장)



서부지방회

# 부활절 찬양예배 개최

## 터키 시리아 지진 이재민 지원을 위해 헌금

4월 9일(주) 부활절 제22회 부활절 합동찬양예배가 서부지방회 교회여성연합회와 서부지방회 신도부 공동개최로 고베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5년 만에 열렸는데 온라인 참가까지 포함해 11개 교회 90명이 참석했다.

1부 개회예배에서는 양영우 목사(무코가와교회)의 “최고의 은혜”(마가 16: 1~8) 메시지가 있었다. 제2부는 각 교회의 퍼포먼스 발표로, 먼 교회는 동영상을 통해 찬양과 웃음을 전해왔고 대면에서는 각 교회에 의한 찬양과 주일학생들의 성구암송, 댄스등이 있었다. 다양한 퍼포먼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했다.

한승철 목사(고베 동부교회)의 축도후 양율자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날 헌금은 터키 시리아 지진 이재민 지원을 위해 보낸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직 많은 인원의 식사는 어렵기 때문에 삼각김밥과 빵으로 대신하였고 부활의 기쁨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보고: 최미혜자)



관동여성회

# 제71회 정기대회 개최

## 대회 후에 「죽음과 천국」 제목으로 강연회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71회 정기대회가 3월21일(화), 한 사랑교회에서 10개 교회의 대의원 28명 중 22명의 출석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김근식목사(한사랑교회)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사도행전13:1~3)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던 후, 이해숙목사(사랑의전도소)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었으며 곽은주목사(샘물교회)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회장 김혜진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에는 각부 보고, 각 교회 여성회 활동보고, 예산안 심의 등으로 진행되고, 승인되었다.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강연회의 시간을 갖었다. 강사는 스즈키 다카히로(鈴木崇巨)목사가 <죽음과 천국>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연을 해 주셨다.

강연회의 휴식 시간에 권 초혜장로(후나바시교회)의 봉사로 스트레치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 이민례)



(서면), 송복희권사(영상), 권옥화 「색동의 집」 이사장(서면)의 축사 후, 각종 보고와 예산안 심의가 있었고 모든 항목에서 승인을 받았다.

주님 은혜 가운데 대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천말선)



서부여성회

# 제36회 정기대회 개최

## 코로나 이전의 활동 진행토록 확인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36회 정기대회가 4월 13일(목) 오후 1시부터 아카시(明石)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온라인을 포함해 5개 교회에서 대의원 14명, 배석 8명이 참석했다.

개회예배는 윤풍자부회장의 사회로 한승철 목사(神戸東部교회)로부터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 (민수기 6:22-27)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어서 성찬식에 참여했다.

양울자회장의 개회사와 개회선언이 있었고 참석자와 내빈 소개를 했다. 이어서 이시마시마리에(石橋真理恵) 전도사(전국여성회 총무)의 축사가 있었다.

회의에 들어가 총괄 보고와 결산 보고 등이 있었으며 건의안으로 비상사태시 정기대회 개최에 대한 현장 추가 등이 토의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승인되어 2023년도 활동 방침안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회예배는 양울자회장의 사회로 윤중현목사(明石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로마 8:14)의 메시지가 있은후 축도로 폐회했다. (보고:윤혜정)



중부여성회

# 제63회 정기대회 개최

## 오랜만에 식탁 교제를 나누다

지난 4월 6일(목), 토요일(豊橋) 교회에서 중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 63회 정기대회가 5교회 대의원 25명 중, 25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한된 대의원 수였으나 오랜만에 토요일 교회 여성회가 준비한 맛있는 점심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개회예배는, 김성언목사(豊橋교회)에 의한 「당황하는 베드로」(행 10:9-18)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으며, 채은숙목사(大垣교회)의 집례로 성찬식이 행해진 뒤, 김성언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개회 선언 후 내빈 소개(김명균목사, 김성언목사, 전병옥목사, 채은숙목사, 권윤일목사)가 있었으며, 전회의록과 위원회 보고는 서면으로 승인을 받고, 각 부 보고, 각 교회 보고, 회계 보고가 있었다. 그 뒤 2022년의 활동 사진 상영이 있었으며 다음 정기대회 개최 장소를 나고야교회로 확인하고 의사를 종료했다.

폐회예배는, 이시마시마리에(石橋真理恵)전도사(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에 의한 「재산을 맡긴 주인」(마25:14-19)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으며, 채은숙목사의 축도와 이정자 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정기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할 수 없었던 식사, 성찬식 등을 행하며 그리운 얼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뻐했던 것은 처음 참가하는 대의원들을 맞이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보고:윤혜정)

(보고:윤혜정)



서남지방교회여성연합회

# 제66회 정기대회 개최

## 신회장에 박현숙권사 (福岡) 선출

2023년 4월22일(토) 오후1시부터 3년 만에 서남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66회 정기대회가 6교회에서 총대 18명 중, 16명의 출석과 5명의 배석으로 고쿠라(小倉)교회에서 대면으로 모인 대회가 실현되었다.

긴 기간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쩔수 없이 서남지방회 여성회로서의 활동을 자숙되어 왔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기쁨의 날을 맞이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개회예배는 이해란목사(오리오교회)가 <집사가 옆에서> (요 19:25~27)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금번 대회에서 임원개선이 있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회장: 朴賢淑 (福岡)     | 副会長: 任永淑 (折尾)    |
| 書記: 卞恩珠 (福岡)     | 副書記: 鄭閔姬 (福岡中央)  |
| 會計: 梁晶子 (小倉)     | 副會計: 李好子 (小倉)    |
| 宣教師長: 韓榮蘭 (福岡)   | 教育部長: 李亜紀子 (宇部)  |
| 青年部長: 許喜順 (下関)   | 社会部長: 菅原幸子 (下関)  |
| 規約部長: 金瑪璃 (福岡中央) | 財政部長: 洪西映 (福岡中央) |
- 현의안은 규칙개정(일부)에서 회장과 부회장의 연령을 70세 이하에서 70세 미만으로, 비상사태에 회의 개최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폐회예배는 박현숙 신회장의 사회로 주 문홍목사(고쿠라교회)가 <갈증이어> (요19:30)라는 메시지와 축도로 폐회했다. (보고:윤혜정)



관서여성회

# 제70회 정기대회 개최

## 39명이 출석하여 심의하여 모두 승인

제70회 정기대회 2023년 3월25일(토) 오사카교회에서 관서지방 교회여성연합회 제 70회 정기대회가 12교회 45명의 대의원 중 11교회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관서지방회장 박영자 목사(도요나카제일부흥교회)에 의한 「기적을 부르는 사랑의 관계」(누가복음 5:17~25)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그 후, 박애선목사(이마후쿠교회)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회의는 김인희 회장을 의장으로 하여, 박영자목사, 배양일장로

특별연재 3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3)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성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3> 증언 : 사람들이보았던 학살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방대한 증언 중에서 몇 가지 담아본다 :

(1) “대지진의 이야기, 西村喜代子(麻布区本村尋常小学校一年) 큰 지진이 이었을 때, 飯倉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9월2일 -인용자) 모두 本村쪽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本村의 친척집 연못은 피로 물들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불량조선인.인용자)들이 쳐들어온다고 순경이 말하러 왔습니다.” (琴秉洞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 I 朝鮮人虐殺関連児』 童証言史料』 299-300頁 “가다가나” 원문을 “히라카나” 로 변환: 인용자).

이 아이의 작문에서, 9월3일 오전에 “불량 조선인 폭동(不逞鮮人暴動)” 이라는 허위 전문이 船橋 해군 송신소로부터 전국 지방 장관에 발송되기 전, 9월 2일 시점에서 관현이 유언 비어를 확산하고 있었다는 실태를 알 수 있다.

(2) <자, 그렇게 하는 동안 소위 유언비어가 밀물처럼 가까이 흘러들어 왔다... “조선인들이 형겁에 석유를 적서 방화하고 다닌다. 동경의 화재는 그들의 짓이다. 그리고 우물에 독약을 넣어 일본인을 살해하려 한다.” 누구의 입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무서운 말이 우리 동네에도 들려왔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엄청난 일이라 생각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는 되어진 일에 대하여 시비와 진의를 판단해 보자는 냉정함은 물론 없었다. 전파와 같이 그 일은 근방 지역에 확산되어갔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긴장해 있었다.

재향 군인, 청년단, 소방부는 모두 몸을 굳히고 동네의 교차로, 요소에 이상하게 빛나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했다. 친린 마을에서는 확실히 근거가 없는 보고가 전해졌다. “x x 마을에서는 우물에 독약을 던지는 곳을 적발하여 잡았다.” “00마을에서는 몇 십명이 몰려 강도질하러 왔다.” “지금 \*\*마을에서 수 십명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문에 자경단은 철저히 매복하여 기다렸지만 물론 고양이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반광란적인 살기 가득한 공기는 우리 동네에서 7주간이나 계속되었다. 姜徳相他 『現代史資料 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183頁)。

이 증언은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도취되어 믿어버리고, 집단에서 집단으로 퍼지는 유언비어의 무서움을 전해주고 있다.

(3) 다음은, 당시, 19세에 센다가야(千駄ヶ谷)에 사는 와세다(早稲田)대학 청강생이며, 나중에 연출가가 된 치다 시야(千田是也)의 증언이다.

“...젊은이들은 자경단으로 나서라 하기 때문에 나도 등산 지팡이를 가지고 이웃 대학생과 함께 경비를 서게 되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서 경찰을 위해 센다가야역의 선로 위로 올라갔다.

그때에 내원과 외원을 연결한 도로(그 당시에는 풀밭이었지만) 쪽에서 등불 행렬이 나란히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아, <불량 조선인>이라고 생각해,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나는 허리쪽을 한 대 얻어맞았다. 놀라서 돌아보니 키가 엄청 큰 남자가 있어 <있대 조선진이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제빨리 일본인임을 호소하고 와세다의 학생증을 보였지만 믿어주지 않았다. 흥분한 그들은 장작과 목검을 흔들면서 <아이우에오를 말해!>, <교육 칩어를 말해보라>면서 잇따라 요구해 왔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든 잘했지만 <역대 천황의 이름을 말해라>라고 말했을 때는 역시 곤

란했다. 이것은 방금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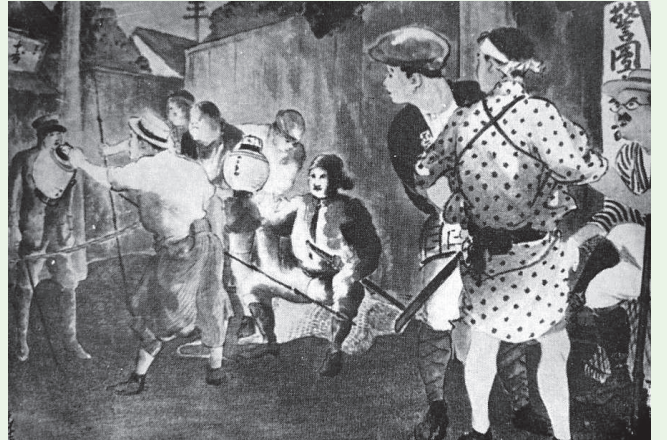
이제 큰일났다고 각오를 하고 있었을 때, <뒤편, 이토(분명)씨의 도련님이잖아>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일요학교에서 함께했던 무렵의 지인이었다. 이 한 목소리로 나는 구원되었다.

그래도 나는 죽지 않고 끝났지만, 조금 수상하다는 것만으로, 일본인도 포함한 죄도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명 살해되었을까? ” (西崎雅夫 『關東大震災 東京地区別1100の証言 朝鮮人虐殺の記録』 157-158頁)

그는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공포의 체험을 센다가야에서 체험한 것으로부터 「千田」라고, 그리고 「조선인」으로 잘못 여겨져서 위험하게 죽는 체험을 한 것으로 인해 「조선 Korea」로부터 따온 한자를 사용해 「코레야」라고 자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4) “학살의 참상, 하천 광장에 한인을 다수 잡아 모아 수천 또는 수백명 무차별 찢어 죽이고 병영 또는 경찰서 구내에서도 수 백, 수 십명 집합시켜 살해하였고 거리에서 찾아내는 대로 군인과 경찰관이 총과 칼로 죽이고 소위 자경단, 청년단 등은 <조선인>이라고 외치는 고성에 늑대 무리처럼 동서남북에서 모여들어 한 명의 우리 동포에 대해 수십 명의 왜놈이 잡고 검으로 찢어 총으로 사봉(射棒)을 해서 때리고 발로 차서 굴러 죽게 하고는 목을 묶어 찢고 걷어차면서 시체에 까지 능욕을 더하거나, 부녀자들을 보면 양쪽에서 좌우의 다리를 당겨서 생식기를 검으로 찢어 한 몸을 4등분 5등분 하면서 여자는 이렇게 해서 죽이는 맛이 있다고 웃으며 담화하면서 우리 동포를 전철 궤고 아래에 목을 매달아 그 양 다리에 줄다리기 를 붙여 좌우에서 여러 명이 줄을 잡고 신호를 하면서 화답하면서 <그네> 처럼 흔들려 죽인것도 있어...” 「虐殺と題する不穩冊子に關する件」 <朝鮮總督府警務局 大正十三年三月二十二日 高警第九五一号>に記録された「虐殺」四千二百五十七年一月 調査員一同告白 右代表 金健 所取: 姜徳相他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331頁)

이 수많은 증언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7:19-20) 라는 인간의 죄의 실상에 대한 바울의 통찰을 떠올리면서 인간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는 예수님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되돌아보신 눈빛(누가복음 22 : 61)에 대하여 조용히 생각한다.



자경단이 통행인을 검문하고 있는 그림. 비상선이 쳐져있다. (강덕상 외 『현대사 자료6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소장)